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상하이 증시 국제판 개설 논의 진전

- 5월 20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해외 우수기업의 중국증시 상장을 위한 국제판 (international board, 国际版) 개설계획이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라 국제판의 연내 개설 가능성이 높아짐.
 - 2009년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상하이로 글로벌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이에 따라 상하이 증권거래소 내에 해외 우수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판 개설을 추진함.
 - ‘국제판’은 포춘(Fortune) 글로벌 500대 기업과 해외시장에 상장된 초대형 중국 기업들만 상장할 수 있으며, 일정한 자격을 갖춘 A주 계좌 소지자*가 국제판 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를 허용할 방침임.
 - * 중국 증시는 A주 증시와 B주 증시로 구분되며, A주는 중국 국내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된 주식으로 위안화로만 거래되고, B주는 달러 또는 홍콩달러로 거래되는 ‘특수주’ 증시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도 허용되고 있음.
 - 중국은 외국기업의 업무확대를 위한 해외자금 전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판 개설을 기대하고 있으며, 중국 내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도 글로벌 기업의 중국증시 상장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- 금융감독당국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국제판 설립이 중국 금융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, 기존 증시자금이 국제판으로 이동하면서 내국인 전용 A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.
 - 금융감독당국은 ‘국제판’ 설립이 국제판이 해외증시에 상장된 우량한 중국기업을 A주 증시로 귀환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.
 - 그러나 국제판이 설립되면 기존 증시자금이 국제판으로 이동하면서 A주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5월 23일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는 각각 2.93%, 3.44% 급락함.
 - 일부 전문가들은 ‘국제판’이 설립될 경우 새로운 국제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존 증시자금의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함.

(중국증권보 05/21, 재금망 05/24)